

古典國譯의 方法論

金 九 鎮

(弘益大 歷史教育科)

古典의 國譯이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완전함을 이룩하려면 고전 국역에 대한 새로운 方法論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과거의 단일한 기획에서 벗어나 자료의 再構成을 시도하는 한편, 研究翻譯을 추진하여 고전 국역이 韓國學 연구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한국 文化의 발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I. 머리말

오늘날 우리 민족의 얼을 찾고 우리 문화의 脈을 이으려는 기운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고전 문화에 대한 인식이 새삼 절실하게 되어 우리 고전의 국역은 시대적인 과제가 되었다. 해방 이후 고전 국역이 점차 활기를 띠게 된 것도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오늘날 우리 민족의 자아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고전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고전 국역이라 함은 고전 문화의 精粹를 담은 옛 전적을 오늘날의 常用語인 한글로 옮기는 작업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고전을 오늘날의 나랏말(國字)로 옮기는 것이다. 한글이 創製된 정신에서도 나랏말, 즉 국가가 중국과 달라 쓰기에 불편하므로 한글을 창제하는 바라고 하였다. 결국 고전의 국역이란 한자로 쓰여진 우리의 고전을 한글로 되치는 일을 말한다. 國譯이란 말은 최근에 한국 고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나타

내는 뜻으로 널리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다른 외국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것까지를 포함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므로 국역이란 개념은 우리 고전을 한글로 되치는 일에만 국한하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고전을 한글로 되치는 것을 국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온당한지는 한번 논의·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고전 국역 사업이 이론적인 정립을 통하여 體系的인 발전을 추구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우선 本稿에서는 종전대로 고전 국역이란 용어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다).

우리 말로 되치는 일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 하나는 고전 국역이요, 다른 하나는 외국어 번역이다. 고전 국역은 한문으로 쓰여진 우리 문화, 우리 사상을 한글로 옮겨 오늘의 문화와 사상으로 脈을 잇게 하는 작업이다. 외국어 번역은 외국어로 쓰여진 외국어 문화, 외국의 사상을 한글로 다시 옮겨 우리의 문화 사상에 소개하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전자는 시대와 공간의 차이를 극복하여 고전 문화를 현대 思潮에 接

木시키는 垂直의 文化傳授關係인 데 비하여, 후자는 대개 장소에 따른 언어와 차이를 극복하는 이른바 동 시대적 문화를 소개하는 水平的 思想交流關係라 하겠다. 앞으로 우리 문화의 발달에 따라 해외에서도 우리의 사상을 소개하는 번역작업이 활발히 전개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해외문화의 일방적인 유입만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문화가 외래 문화에 압도당하여 窒息·枯死하기 직전에 있다.

아더한 외래 문화, 즉 서양 문화에 압도당하는 현실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고전 문화를 연구·발전시켜 우리의 일을 되찾고 우리의 사상을 振作시키는 것이다. 고전 문화를 진작시키는 길은 한문으로 쓰여진 고전을 오늘날 한글로 옮겨 누구나 우리의 고전 문화를 쉽게 접하게 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고전 국역 사업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당면한 가장 절실한 急先務의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II. 古典國譯의 필요성

1. 한글 세대의 등장

오늘날 우리 문화는 한글을 그 媒介體로 하는 이른바 한글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상과 지식을 모두 한글로 표현하기 때문에 한글 문화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과거에는 한문으로 그 사상과 지식을 표현하였기 때문에 문자로 따진다면, 漢文文化圈에 속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비록 한문을 빌려서 기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선인들이 우리의 사상과 일을 단지 한문이라는 문자만을 빌려서 썼을 뿐이므로, 그 사상과 문화를 중국 문화와는 다른 우리의 固有文化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일찌기 茶山도 “나는 조선 사람이므로 조선 시를 즐겨 쓴다(我是朝鮮人 甘作朝鮮詩)(與猶堂全書, 老人一快事)”고 하면서 배와 풀이 각각 그 맛이 다르듯이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그 풍토에 맞는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굳게 역설하였다. 한문으로 쓰여진 우리의 고전들이 중국의 儒敎文化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풍토와 민족성에 알맞는 고

유 사상의 발전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흔히 문화란 자연의 조건에 인력이 가해지는 것을 뜻하므로, 우리의 고유 문화는 우리 한국이란 풍토 위에 우리 민족의 노력이 끈질기게 더해져서 이룩된 산물이다. 과거 우리의 土壤을 무시하고 중국의 발달된 유교 문화를 모방하였던 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서양의 외래 문화를 盲從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실제로 일부 유학자 계층에서는 중국의 유교를 欽慕하여 맹종하지 아니한 바도 아니지만, 우리 민족의 대다수는 중국의 문화가 아닌 우리의 고유 문화를 지키고 또 발전시켰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전을 국역하는 것은 중국의 한문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 문화를 다시 한글 문화로 환원시키는 작업이다.

한문 문화권에 속한다고 하여 곧 중국 문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문으로 쓰여진 모든 고전을 중국의 유교 문화의 殘滓로 돌린다면 우리의 고유 문화를 담고 있는 고전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왜냐하면, 前近代社會에 있어서 동양의 여러 나라, 특히 중국 주변의 나라들은 대개 우수한 문자인 한자로써 창작 서술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이 비록 가나라는 문자를 가졌었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 고유한 문자를 두고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저작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전 근대사회에 있어서 유교 문화가 성행하던 지역에 있어서 한자는 그 표현의 공통적 수단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인들이 한글을 두고 한자만을 썼다고 하여 그들의 罪大主義의 속성을 나무랄 수는 없다. 오늘날 일본에서 한자로 쓰여진 그들의 고전을 중국 문화의 亞流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한문 고전을 우리의 固有한 文化遺産으로 간주해야 한다.

오늘날 남아 있는 우리의 고전을 약 40~50만 종으로 추정하는데, 그 대부분이 한자로 쓰여진 책들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자에 익숙하지 못한 한글 세대에서는 이러한 고전들을 도저히 읽을 수 없다. 특히 해방 이후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 대두하면서, 한자는 더욱 배척을 당하고 한글 專用으로 치달게 되었다. 오늘날 세계사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나라가 자기 민족의 優

秀性을 내세우고 자기 문자를 쓰는 풍조가 강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멀리하고 한글을 오로지 쓰는 것은 당연한 推移라고 하겠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본의 植民地統治 아래에서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기고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반사작용으로 외래어를 배척하고 나라 말과 나라 글을 쓰자는 정신이 강하게 일어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思潮가 교육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 결과 해방 이후 40여 년 동안에 한자를 모르는 한글 세대가 탄생하게 되었다. 비록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 한문 교육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한글 전용의 추세는 더욱 강화되리라고 추측된다. 이러한 풍조는 민족사적 또는 세계사적 추이로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으며, 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時代的 推移로 말미암아 한문으로 쓰여진 우리의 고전들이 점차 우리 생활과 우리의 시야에서 멀어져 가게 되었다. 그나마 한문을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던 세대가 점차 사라져 버리게 된 현실에 있어서, 가장 곤란한 문제가 우리 고전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원래 한문 교육은 서당에서 암기식 위주로 전수되는 것인데, 오늘날 이러한 書堂教育을 받아 한문의 고전을 통달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고전 국역은 오늘날 이 시점에 있어서 당연한 급선무의 課題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 문화의 斷切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고전 국역은 한시가 급한 시대의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세대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소수에 지나지 않는 한학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 고전 국역을 한 권이라도 더 많이 해야 한다. 실지로 우리가 해방된 직후에 곧바로 고전 국역 사업을 강력히 추진했더라면, 오늘날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고전 국역의 사업은 제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40~50만 종의 고전 가운데, 겨우 1백여 종 정도를 번역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 學園의인 차원에서 고전 국역을 추진하지 않는 한, 수많은 우리의 고전

은 死藏化될 수밖에 없다. 우리 선인들의 사상과 얼을 담은 고전을 사장시킴으로써 우리 문화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2. 민족 문화의 連繫性

다음으로 고전을 국역하는 목적을 생각해 보면 傳統文化의 精粹를 계승 발전시켜 近代文化에 이바지하려는 데에 있다. 오늘날 근대문화란 서양에서 들어온 문화를 흔히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근대문화란 곧 동양의 근대문화로서 東洋的 傳統文化와 西洋的 近代文化가 融合하여 이룩한 보다 우리 민족에게 알맞는 문화를 말한다. 오늘날 한결같이 문제시되는 것은 서양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우리의 전통적 고유 문화와 민족 얼을 손상시키는 점이다. 우리가 外來文化를 수입할 때 너무 국수적인 태도를 취하여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것도 좋지 않으나, 민족 정신을 망각하고 고유 문화를 부정하던서까지 외래 문화를 수용하는 것도 나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외래 문화를 수용하되, 民族의 主體性을 갖고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것은 배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외래 풍조가 문화 전반에 만연하여 어찌 가지 좋지 않은 폐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서구 문화의 폐단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의 전통 문화를 되살리는 길밖에 없다. 결국 전통 문화를 되살리고 민족의 얼을 되찾는 제일차적 작업이 바로 고전 국역 사업이다. 왜냐하면, 고전 국역 사업은 전통 문화의 정수를 담은 고전을 오늘날 상용되는 쉬운 한글로 옮김으로써, 전통 문화를 한글 세대에 직접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종의 古典文化의 復興運動이라 할 수 있다.

서양의 중세 사회가 기독교의 敎權에 눌려 거의 절식 상태에 있다가 그레코 로마시대의 고전 문화를 다시 부흥시킴으로써, 근대문화의 첫 출발이 되는 르네상스, 즉 문예부흥을 가져왔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양의 르네상스가 고전의 연구를 통한 문예부흥으로 새로운 문화의 장을 열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에도 고전의 번역과 연구가 그 밑바탕이 되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었다.

한편 동양에 있어서도 일본이 오늘날과 같은 문화와 부를 축적하게 된 계기를 흔히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의 개혁에서 찾는다. 메이지 유신 때에 많은 고전이 현대 일본어로 번역되어, 일본의 근대 민족 정신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인들은 동양의 고전을 국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知的 結實을 신속하게 번역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고전 국역을 통한 垂直的인 固有文化의 傳承과, 외국 서적의 번역을 통하여 水平的인 文化交流를 이룩함으로써 고유한 민족 정신을 그대로 발전시키는 한편 외래 문화를 選別的으로 수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전통 문화와 서양 문화의 융합은 오늘날 日本文化의 根幹을 이루어, 일본의 세력이 강대국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근대 서양의 문화를 도입하여 民族文化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관건이 바로 고전 국역에 달려 있다. 그러나 傳統文化를 계승한다는 것이 과거의 모든 문화유산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뜻은 아니다. 과거의 전통 문화와 오늘날의 現代文化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반된 면이 없지 않다. 우선 전통 문화는 농경생활에 바탕을 두었으나, 오늘날의 근대 문화는 비농경생활, 즉 産業社會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농경생활에 알맞은 전통 문화가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산업 사회의 근대 문화에 알맞지 아니한 요소가 많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전 국역을 통하여 전통 문화유산을 계승하되, 현대의 산업사회에 긍정적인 사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을 取捨選擇해야 한다. 수많은 고전 가운데 현대의 사상과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만을 골라서 번역해야 하기 때문에 고전 國譯事業에 있어서 국역 대상의 畧目選定이 중요적 요건이 되며, 또 동일한 책에서도 그 내용의 취사선택이나 또는 再構成이 필요하게 된다.

당시 전통 문화의 주역을 담당할 사람들은 일부 양반계층으로서 특수 신분이었다. 이에 비하여 오늘날의 근대 문화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大衆文化이기 때문에, 특수계층의 취향을 강하게 풍기는 전통 문화를 오늘날 그대로 수용하는 데는 곤란한 점이 없지 않다. 특히 유교 문화에 바탕을 둔 유학자들의 저서는 상당히 甚大의 인원이 강하여 중국 문화를 흠모하고 우리의 고유 문화를 천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러한 유학자들이 남긴 문집을 보면, 한문의 문장을 자랑하는 시, 문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또 유교의 觀念論에 사로잡혀 오늘날 근대 문화로서 볼 때 그 보편성이 결여된 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兩班文化는 우리 고전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그 나머지 대다수는 당시 우리 겨레가 지녔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오늘날 우리 민족 정신을 되찾고, 민족 문화를 부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문은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전통 사회에 있어서 일부 특수 계층만이 문자의 혜택을 누렸다. 이처럼 특수 계층의 문자로서 한자 기능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15세기에 한글을 만들어 經典이나 佛經을 언해하여 대중 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였던 것이다. 15세기 후반기부터 꾸준히 진행된 諺解事業은 오늘날 고전 국역 사업의 전신으로서, 전통 문화의 大衆化, 普遍化, 一般化를 도모하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배계층인 유학자들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언해 사업은 별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오늘날 고전 국역 사업이 앞으로 성공을 거두자면 근대 문화의 주역을 담당하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學族의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고전 국역을 추진해야 한다.

고전 국역 사업은 어디까지나 문화의 창조를 위한 未來指向의 성격에 띠어야 한다. 전통적 가치관에 얽매어 진보적, 발전적 요인을 억압해서는 아니 되며, 너무 民族的의 國家觀을 내세워 우리 문화의 세계사적 기여와 세계 문화의 교류에 지장을 초래해도 아니 된다. 우리가 고전 국역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전통 문화와 근대 문화의 連繫性을 이룩하여 새로운 근대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古典文化復興運動을 이룩하여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

하자는 것이다.

Ⅲ. 고전 국역의 方法論

1. 연구 번역

고전 국역에 있어서 최선의 方法論이란 첫째 그 목적대로 민족 문화 창달에 보다 많이 이바지할 수 있고, 둘째 질적으로 誤譯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고, 셋째 양적으로 적은 경비로써 많은 책을 되쳐서 펴낼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먼저 민족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전 국역의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종래처럼 妥當한 생각에서 벗어나 讀者階層을 의식한 積極적 방법론을 채택하자는 것이다. 고전 국역은 먼저 그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국역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고전 국역의 방법론을 둘러싸고—直譯 위주가 옳으나, 意譯 위주가 옳으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외국어 번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고전 국역에 있어서 일반 대중을 위한 번역은 直譯보다는 意譯이 훨씬 낫다. 왜냐하면 直譯으로 옮길 때는 아무래도 말이 어색하고 그 뜻의 전달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번역하는 사람이 補充說明을 넣어 意譯을 하고 말을 부드럽게 고쳐서 그 뜻을 잘 통하게 한다. 그러므로 흔히들 번역을 ‘제 2의 創作’이라 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역은 原意를 손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역에 있어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어떤 학자는 이러한 原意가 손상된 번역은 고전을 파괴하는 행위라고까지 극언한다. 오늘날 고전이 번역되어 있으면서도 專門學者들이 번역된 고전을 기피하고 原典을 중요시하는 것은 이러한 번역의 방법론과도 관계가 있다.

특히 고전 국역에 있어서 번역의 用語를 선택할 때에 오늘날 흔히 쓰이는 쉬운 常用語를 선택하고, 文章을 간결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敎養的 古典의 번역’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비하여 專門研究者를 위한 번역에 있어서는 意譯보다는 直譯이 바람직하다. 왜냐하

면, 이미 原典의 고전적 用語를 잘 이해하고 있는 專門家에게는 옛날 용어를 그대로 쓰더라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原典의 用語를 함부로 現代常用語로 바꿈으로써 混亂을 야기시킬 위험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專門家나 知識人을 위한 ‘전문적 고전의 번역’에 있어서는 直譯을 위주로 하여 用語나 句節에 대한 전문가적 경지의 註釋이 필요하다. 고전 국역을 漢學者만이 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전문가적인 경지의 ‘研究註釋’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번역이 추구해야 할 최상의 方法論은 바로 이러한 연구 번역일 것이다. ‘研究註釋’이 붙지 않는 번역은 그야말로 글자의 옮김이나 또는 문장의 옮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번역은 모름지기 그 내용의 뜻을 제대로 옮기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研究번역’은 漢學者와 전문 연구자의 協同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먼저 한학자가 한문을 한글로 옮기고, 그 다음에 전문 연구자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研究註釋’을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二重의 作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물질적 소비가 많아 이러한 연구 번역이 행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번역과 校閱작업이 이러한 식으로 행해진다던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줄 믿으나 실지로 校閱는 형식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식적인 校閱를 몇 사람의 나이 많은 大家들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인 교열을 전문적인 연구자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연구 번역을 채택할 때에는 오늘날 연구되고 있는 學界의 研究成果를 번역 작업에 그대로 反映해야 하므로, 주석과 해설이 오히려 번역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따르게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전문 연구자들이 모여 토론을 하고 숙의를 거쳐 겨우 결론을 얻어낼 수밖에 없다. 그나마도 해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구 번역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 지금 제한된 시간과 경비를 가지고 고전 국역을 추진하는 현실에 있어서 이러한 연구 번역은 하나의 理想論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번역 자체가 완전 번역을 추구한다면 이러한 연구 번역을 最上의 方法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완전 번역'이란 실체에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원저자의 뜻을 저자 자신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도저히 그대로 옮길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문자의 옮김이 아니라 의미의 옮김일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를 보면 유명한 고전은 初譯, 重譯의 단계를 넘어 三譯, 四譯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고전은 일단 한번 번역하는 것으로서 그 국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第三, 第四번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아 완전한 번역이란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최상의 方法으로서 '研究번역'이 행해질 수밖에 없다. 또 번역이 행해질 때마다 그 시대의 감각에 맞는 새롭고, 보다 완벽한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번역은 그 독자의 대상에 따라 '敎養번역'과 '專門번역'으로 나누어지며, 또 이에 따라 直譯, 意譯의 方法이 결정되며, 아울러 '단순 번역'과 '研究번역'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고전 국역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로 견지해야 할 方法論은 역시 '研究번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고전의 再構成

고전 국역은 우리 고전의 한문을 한글로 옮기는 작업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고전 국역의 근본적인 목적이 傳統文化를 繼承, 發展시켜 미래文化의 발전에 밑바탕이 되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이 목적에 부합되는 고전 국역의 方法論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40~50만 種이나 되는 고전에서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篇目을 우선적으로 고르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고전 국역 사업이 수세기 또는 수십 세기를 두고 꾸준히 추진해야 할 지속적인 사업이긴 하나,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책부터 차례로 골라서 번역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고전 국역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는 조건의 하나가 바로 국역 대상의 篇目を 선정하는 일이다.

篇目を 선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먼저 고전 국역의 必要性和 當爲性을

이론적으로 體系化하여, 이 기준 위에서 篇目を 선정해야 한다. 현 시점에 있어서 고전 국역의 必要性和 當爲性을 논한다면, 첫째 서구 문화의 個人主義, 利己主義로 말미암아 병들어 가는 가족 제도, 사회 倫理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民族固有의 價値觀을 재확립해야 하며, 둘째 産業社會의 경쟁과 富의 추구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모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민족 固有의 생활 道德觀을 제시해야 하며, 셋째 우리 국가와 민족이 처한 특수한 현실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民族精神을 제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우리가 처한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기초로 하여 고전 국역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의 고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수천년 동안 우리 민족이 경험하고도 思惟한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만한 고전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러한 고전을 선택하여 널리 普遍化시킨다면, 고전 국역은 본래의 목적을 거두게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고전 국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篇目の 선택이라 하겠다.

그러면 서목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40~50만 種이나 되는 책을 어떻게 그 내용을 잘 알아서 그 篇目を 선정할 것인가 하는 方法論이 제기된다. 우선 우리 先人들이 예로부터 중요한 典籍을 대표적인 고전으로 읽고 후인에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처럼 널리 알려진 고전에서 일차로 그 대상을 선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前近代社會의 시대적 배경이 오늘날의 사회 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前時代의 유명한 고전이라 하여 오늘날에도 그 값어치가 그대로 存續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름 없는 無名의 책이 오늘날 사회에서는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수십 만권에 달하는 고전을 일단 그 대상으로 하여 끊임없이 篇目選定作業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목의 선정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고전의 整理와, 그에 따른 古典圖書目録의 작업과 그 解題 작업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典

籍의 완전한 조사발굴 작업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서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奎章閣과 藏書閣의 소장 규모를 보면 奎章閣도서는 25,620種 138,989冊으로서 그 가운데 韓國本이 19,708種 73,421冊이며 中國本이 5,912種 65,568冊이라 한다(奎章閣圖書目錄 1965년도 韓國本目錄, 1972년도 中國本目錄 참조). 한편 藏書閣에 소장된 도서를 보면 韓國本 12,425種 4만여冊이며, 中國本이 1200種 25,839冊이라 한다(藏書閣圖書總目錄 1972년도 韓國版, 1974년도 中國版 참조). 이 밖에도 國立圖書館에 소장된 도서 중 韓國本이 6,229種 18,371冊이라 하며, 국내의 각 도서관이나 개인이 소장한 冊을 모두 합하면 40~50만 種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그 綜合圖書目錄마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體系의 조사 발굴을 통하여 이러한 綜合目錄이 반드시 만들어지리라 믿으며, 또 그 범위가 확대되어 北韓에 있는 典籍까지도 총망라되어야 한다. 이러한 圖書目錄을 經·史·子·集에 의하여 분류하고, 다시 또 그 종류에 따라 細目으로 나누어 발간해야 하며, 그에 따른 圖書解題가 끈기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책들을 골라내어 수시로 국역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전 국역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번역해야 할 書目을 각계각층의 專門家에 의하여 폭넓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리하여 그 우선 순위에 따라 고전 국역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고전 국역이 활성화되어 學族의 인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이러한 書目的 선정은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 특수한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自意대로 선택하여 국역 출판할 수가 있다. 이러한 서목의 선정을 국가적인 차원이나 국역 단체에서 劃一的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국역 사업의 底邊擴大를 통하여 다양한 선택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書目的 선정 작업에 있어서 비슷한 종류의 책들을 하나로 묶어서 국역하거나, 또는 여러 책에서 비슷한 내용을 취사 선택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것을 국역의 再構成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날 필요로 하는 사실을 한테 묶

어서 번역함으로써 多樣하고 綜合된 사상을 현대 사회에 체계적으로 傳授할 수 있다. 흔히 고전 국역이라 하면 외국어 번역에서 취해지는 방법처럼 한 종류의 책이나 한 사람의 저서를 그대로 完譯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러나 고전 국역의 목적이 傳統文化를 현대 사회에 再受容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부분을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부분만을 간주려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 번역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세한 解說과 註釋을 붙여 오늘날 사회의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綜合된 知識과 追經驗을 얻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서 과감하게 한 권의 책 가운데에서 選譯, 抄譯을 할 필요가 있으며 完譯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취사 선택을 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專門의 研究者가 體系화된 識見을 가지고 이러한 작업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예를 들면, 天文, 曆法, 農事, 醫學, 軍事 등의 특수 분야에 대해서는 이러한 編譯의 再構成이 요청되는 것이다. 오늘날 국역 단체 가운데, 世宗大王 紀念事業會나 法制處, 東國譯經院 등에서는 원래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고전 국역 사업에 착수하였던 만큼, 그 단체의 성격에 알맞는 고전 국역의 서목 선택을 통하여 특수한 분야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고전 국역도 분야별로 나누어 전문화시켜야 그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전을 再構成할 때에는 국역 편찬자의 編纂意圖가 뚜렷해야 하므로, 국역 편찬자는 고전에 담긴 특수한 분야를 종합정리하여 體系化시키고 질서 정연한 해설을 붙인 다음, 「研究註釋」을 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아직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한국학에 대한 연구가 깊이 진행될수록 이러한 작업이 더욱 활발히 행해지리라 예상된다. 「朝鮮王朝實錄」이나,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등 방대한 사실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이러한 작업이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국역에서 誤譯을 없애는 방법으로서도 이러한 분야별 재구성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또 한국학의 발달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직접 이바지할 수 있는 국역의 淸경이 될 수 있다.

현재 ‘朝鮮王朝實錄’의 번역 작업이太祖에서 中宗까지 거의 완간 단계에 들어가 있으므로, 朝鮮前期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 細目別로 분류한 재구성 작업이 다시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는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현재 번역된 국역 작업에서 誤譯을 정정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될 수도 있다.

고전 국역의 再構成은 산질되었을 우려에 있는 자료를 발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의 하나이다. 고전 국역을 통하여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수합하고 계구성하여, 국역을 이룩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초적 체계를 세울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開化期의 유명한 인물인 金玉均의 저서로서 ‘甲申日錄’, ‘治道略論’, ‘致沁留書’ 등과 기타 ‘書簡文’을 종합 발굴하여 ‘연구 번역’을 시도함으로써 開化期의 연구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재구성을 통하여 한국학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완벽한 索引과 교감된 原文을 덧붙여서, 한국학 연구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索引은 原文索引과 번역문 索引을 동시에 병행해서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번역문에서 標題語로 선택하는 것이 번역이 된 경우일 때, 원문의 표제어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색인 작업을 통하여 번역의 誤譯을 밝혀 낼 수도 있다.

3. 국역의 多邊化

解放 이후 중요한 고전을 한글로 옮기는 국역 사업이 民間出版社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이리하여 ‘三國史記’, ‘三國遺史’ 등이 이러한 민간 출판사에 의해 번역되어 나왔다. 그러나 일반 독자층이 西歐文化에 대한 일변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전 문화를 外面하는 바람에 민간 출판사에서는 더 이상 고전 국역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었다. 이리하여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국역 사업을 지원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오늘날의 고전 국역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高麗大學校의 民族文化研究所의 전신인 ‘韓國古典國譯委員會’가 1957년에 발족되어 ‘大典會通’, ‘粟谷性理學全書’, ‘破閑集’, ‘慵齋叢話’, ‘花潭集’ 등을 국역하면서부터였다.

이러한 국역 사업은 고려대학교로부터 상당한 보조금을 받아 5년 동안 추진되었으나, 그 후 활동이 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고전 국역의 필요성은 宗教界에서도 마찬가지로 절실하여, 1964년에 東國大學校 부설 ‘東國譯經院’이 창설되어 ‘八萬大藏經’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원래 이러한 국역 사업은 조선왕조 시대에도 諺解事業의 하나로서 활발히 추진되어 왔던 것이다. ‘八萬大藏經’은 워낙 거질이므로 장기간의 계획과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曹溪宗의 總務院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현재까지 100여 책 이상을 간행하고 있다.

한편 지방에 있는 몇 개 대학에서도 고전 국역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니 東亞大學校 ‘古典研究室’에서는 1965년에 ‘高麗史’를 번역하기 시작하여 1971년에 완간하고 그 索引까지 간행하였다. 동아대학교에서 발간한 ‘譯註高麗史’ 11책은 한국사 연구에 큰 디딤돌이 되었으며, 그 후 ‘朝鮮王朝實錄’의 번역에도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동아대학교 ‘古典研究室’에서는 ‘文獻備考’의 국역을 서둘러 그 원고를 만들었으나, 간행비가 없어 출간을 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釜山大學校에서도 ‘懲備錄’, ‘海東諸國記’ 등을 국역 간행하였다.

이처럼 국역 사업이 여러 대학에서 고전 국역의 필요성을 절감한 나머지 추진되었으나, 고전 국역에 들어가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계속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중단되거나, 또는 그 사업이 저조한 실정에 있다. 이리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전 국역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하기에 이르렀다. 고전 국역 사업만을 추진하기 위하여 1965년에 뜻을 같이 하는 學·藝術界 인사 20여 명이 모여 ‘民族文化推進會’를 창립하고, 민족 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고전 국역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民族文化推進會’에서는 정부의 재정 보조로서 1966년에 ‘燃藜室記述’을 국역 간행한 이래 ‘高麗史節要’, ‘東國輿地勝覽’, ‘海行摠載’, ‘燕山君日記’, ‘中宗實錄’과 ‘退溪集’, ‘栗谷集’, ‘三峰集’, ‘西厓集’ 등의 文集을 번역 간행하여 현재 40여 종

〈표 1〉 한국 고전 국역 단체의 실적(1985년 3월 기준)

| 國 譯 團 體 | 國 譯 書 目(國 譯 年 度) |
|--------------------|---|
| 東 國 譯 經 院 | 八萬大藏經 89집 (64년~) |
| 民 族 文 化 推 進 會 | 燃黎室記述 12집 (66~68년), 高麗史節要 5집 (68년), 熱河日記 2집 (68년), 退溪集 2집 (68년), 栗谷集 2집 (68년), 思辨錄 1집 (68년), 東文選 12집 (68~70년), 牧民心書 3집 (69년), 新增東國輿地勝覽 7집 (60~70년), 靑丘圖 2집 (71년), 大東野乘 18집 (71~79년), 萬機要覽 3집 (71~72년), 從谷集 3집 (72~83년), 滄軒書 5집 (74~75년), 海行摺載 11집 (74년~), 經世道表 4집 (77~78년), 麗韓十家文鈔 1집 (77년), 燕行錄選集 12집 (76~82년), 星湖僿說 12집 (76~79년), 高麗圖經 1집 (77년), 三條集 2집 (77년), 西厓集 2집 (77년), 勉庵集 3집 (77~78년), 東史綱目 10집 (77~80년), 五洲衍文長箋散稿 4집 (77년~), 東國李相國集 6집 (78년~), 陽村集 5집 (78~80년), 眉叟記言 5집 (78년~), 靑莊館全書 13집 (78~82년), 益齋集 2집 (79~80년), 樂學軌範 2집 (79~80년), 氣淵隘義 2집 (79~80년), 人政 5집 (80년~), 宋子大全 11집 (80년~), 燕山君日記 9집 (73~76년), 迂書 2집 (81~82년), 中宗實錄 40집 (76년), 茶山詩文集 2집 (82년~), 惺所履齋藥 4집 (84년~), 山林徑流 2집 (82년~) |
| 世宗大王紀念事業會 | 世宗實錄 年代記 20집 (68~76년), 世宗實錄 地理志 3집 (72~75년), 世宗實錄 五禮儀 2집 (73년), 世宗實錄 樂譜 2집 (72~73년), 世宗實錄 七政算 3집 (72~75년), 太祖實錄 3집 (72년), 定宗實錄 2집 (74~75년), 太宗實錄 8집 (74~77년), 文宗實錄 3집 (77년), 端宗實錄 3집 (77년), 世祖實錄 11집 (77~79년), 睿宗實錄 2집 (79년), 成宗實錄 28집 (80년~), 太宗實錄索引 1집 (84년), 梅月堂集 5집 (77~80년), 增補文獻備考 輿地考 4집 (78년), 增補文獻備考 帝系考 3집 (79년), 增補文獻備考 象緯考 2집 (79~80년), 增補文獻備考 禮考 1집 (80년~), 增補文獻備考 藝文考 1집 (80년~), 莊陵誌 1집 (79년), 公私見聞錄 1집 (83년) |
| 法 制 處 | 經國大典 2집 (62년), 大典通編 1집 (63년), 大明律直解 1집 (64년), 受教輯錄 1집 (64년), 詞訟類聚 1집 (64년), 續大典 1집 (65년), 六典條例 4집 (66~74년), 審理錄 2집 (68년), 典錄通考 3집 (69~74년), 受教定例·律例要覽 1집 (70년), 舊韓國法令目錄 1집 (70년), 典律通補 2집 (71~72년), 大典續錄 1집 (75년), 大典後續錄 1집 (75년), 經國大典註解 1집 (75년), 秋官志 4집 (75년), 增修無寬錄 1집 (75년), 刑典事目·欽恤典則 1집 (76년), 春官志 2집 (76년), 度支志 3집 (77년), 兩錢便攷 1집 (78년), 銀台條例 1집 (79년), 交隣志 1집 (79년), 百憲總要 1집 (79년), 惠政要覽 1집 (80년), 國朝五禮儀 5집 (82년~), 居官大要 1집 (83년), 拔萃備邊司謄錄 1집 (84년) |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北征日記 1집 (80년), 治隱集 1집 (80년), 雲峰全書 3집 (80년) 栗谷全書 2집 (82년) |
| 高麗大學校 韓國古典國譯委員會 | 大典會通(60년), 栗谷性理學全書(64년), 破關集·備齋談話(64년), 花潭集·新註道德經(71년) |
| 東亞大學校 古典研究室 | 高麗史 11집 (65~71년) |
|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 飭山全書 1집 (83년), 止浦先生文集 1집 (84년), 保閑齋全書 上中下(84년) |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 兵將說 1집 (83년), 陣法 1집 (83년), 東國兵經 1집 (84년) |

200여冊 이상을 국역 간행하고 있다.

한편 ‘世宗大王紀念事業會’에서 1968년부터 ‘世宗實錄’을 국역 간행한 이래, 太祖에서 成宗 시대에 이르는 朝鮮初期實錄을 꾸준히 간행하고 ‘文獻備考’ ‘梅月堂集’ 등 10여 種 100여 冊 이

상을 간행하고 있다.

정부 기관인 法制處에서도 주로 우리나라 法典類를 1966년부터 국역 간행하여 그 동안 ‘經國大典’을 비롯하여 ‘大典通編’, ‘大明律直解’, ‘受教輯錄’, ‘續大典’, ‘六典條例’ 등 30여 種

50여 책을 국역 간행하고 있다. ‘精神文化研究院’에서도 ‘北征日記’, ‘治隱集’, ‘霧峰全書’를 국역 간행하고, 국방부 ‘戰史編纂委員會’에서 ‘兵將說’, ‘陣法’ 등을 국역 간행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전 국역 사업은 초기에 민간 출판사에 의해서 추진되었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국역 단체들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대학은 국가 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민족 문화 창달에 선구적 역할을 하는 곳이므로 고전 국역 사업도 서울과 지방의 여러 대학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그 命脈을 유지해 오고 있다. 오늘날 여러 대학에서 한국학 연구에 관심을 갖고 한국학 연구소를 많이 세우고 착실한 研究業績을 내고 있으나, 선뜻 고전 국역 사업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 가장 큰 이유가 고전 국역 사업에는 상당한 경비와 인적 자원이 확보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전 국역 사업이 한국학 연구에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각 대학에서 과감하게 고전 국역 사업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또 정부에서도 각 대학의 韓國學關係의 研究所에 재정적 뒷받침을 하여 국역 사업의 多邊化를 기해야 할 것이다.

고전 국역 사업은 문화 사업이기 때문에 ‘官主導型’에서 탈피하여 ‘民間主導型’으로 추진해야 한다. 40~50만종이나 되는 고전을 국역하려면, 한두 기관에서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大學研究機關에서 앞다투어 이에 참여하여, 한 권이라도 더 많은 책자를 국역 간행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고전을 국역 간행하여 대학 사회에 널리普及시킴으로써, 우리 문화의 새로운 창달을 도모해야 한다. 각 대학에서는 한국 고전을 교양의 必須課目으로 선정하고, 우리 고전에 대한 새로운 認識을 한글 세대에 널리 촉구해야 한다. 고전에 대한 학생과 일반 대중의 새로운 인식만이 고전 국역 사업의 底邊擴大를 이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고전 국역 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더욱 촉진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고전 국역 사업은 自活的인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언제까지나 정부나 공공 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전 국역 사업이 활성화될 때까지 정부 당국이나 공공

기관에서는 大學研究所, 또는 민간 단체에 대하여 고전 국역 사업을 多邊化시키고, 本軌道에 오를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고전 국역 사업이 多邊化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 研究機關의 특색을 살려 분야별로 그 一翼을 담당함으로써 고전 국역이 보다 多樣性 있게 추진될 수 있으며, 또 고전 국역이 학생과 일반 대중에 널리普及됨으로써 그 底邊擴大를 통하여 보다 많은 量의 典籍을 국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전 국역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學族的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획일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多樣한 방법으로 추진해야 하며, ‘官主導型’ 보다는 ‘民間主導型’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반드시 문화 사업은 일반 대중이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져 自發的으로 이에 적극 참여할 때만이 그 結實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의하여 정부에서는 대학 研究機關이나 고전 국역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인 뒷받침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각 연구 기관과 민간 단체에서는 자기 專門分野의 특성을 살린 고전 국역 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한국학 연구에 기여를 하고 나아가서 민족 문화 창달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문에서 文·史·哲을 나누어 다시 그 분야를 세분하는데, 이에 준하여 각 연구소나 민간 단체가 專門的인 국역 연구 분야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전문적인 능력의 확립은 고전 국역의 인재를 키우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東國大學校에서는 譯經院을 통하여 佛經을 번역하는 人材를 자체적으로 키우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民族文化推進會에서 國譯研修院을 개설하여 1975년부터 國譯者養成을 하고 있으나, 각 대학에서도 연구소를 통하여 도제식으로 후계자를 양성할 수 있다. 대학의 관련 學科, 예를 들면, 史學科, 歷史科, 國史科, 漢文科, 東洋哲學科 등에서 대학 또는 大學院에 정규 과정을 거쳐 人材를 양성하는 한편, 각 대학의 부설 韓國學 研究所에서 고전 국역을 통하여 이들을 國譯要

員으로 양성할 수가 있다. 오늘날 國學·東洋學 關係의 大學院 석사, 박사 과정 출신자들을 수용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고전 국역 사업을 가능한 한 多邊化시켜야 하며, '民間主導型'으로서 일반 출판사가 앞을 다투어 고전 국역을 간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IV. 맺는 말

고전 국역은 한국학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서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학과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고전 국역이 일반인들에게 韓國學資料를 직접 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고전 국역은 오늘날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고전에 접할 수 있는 窓口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전 국역은 한문으로 쓰여진 우리 고전을 한국학 연구 자료로서 활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를 오늘날 近代文化에 접목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고전 국역이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학 연구에 이바지한 바가 적지 않으나, 아직도 그 畧與度는 미미한 실정에 그치고 있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번역된 고전은 그 종류와 수가 50여 종, 500여 책에 그치고 있어 우리나라 고전 40~50만 종에 비하면 九牛一毛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번역의 양이 적기 때문에 한국학 연구에 있어서 고전 국역이 차지하는 위치가 극히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北韓에서도 고전 국역 사업을 추진하여 「朝鮮王朝實錄」을 완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등의 기본 전적을 국역 간행하였다고 한다(梁泰鎮, 「北韓의 古典國譯實態」, 『民族文化』 第8輯 참조). 그러므로 우리도 고전 국역 사업을 거족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여 量的으로도 괄목할 만한 실적을 이룩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은 質的으로 誤譯이 없는 우수한 번역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처럼 양과 질에 있어서 완전 번역을 이룩하려면, 고전 국역에 대한 方法論을 새로이 모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과거처럼 단일한 기획에서 벗어나 자료의 再構成을 시도하는 한편, 研究번역을 추진하여 고전 국역이 한국학 연구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한국 문화의 발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전 국역이 한국학 연구와 民族文化의 발달에 이바지하지 못한다면, 고전 국역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고전 국역과 한국학 연구는 서로 表裏의 관계에 있다. 고전 국역은 한국학 연구에 기초가 되며 고전 국역을 통하여 傳統文化를 일반 대중에게 널리 보급함으로써 우리 민족 문화에 새로운 발달의 場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전 국역 사업은 먼저 대학 사회로 확산시켜 대학의 韓國學關係研究所가 이 일을 담당하는 先頭的 역할을 해야 한다. 고전 국역은 종대처럼 획일화에서 벗어나 多樣性 있게 추진해야 한다.

원래 한문의 번역은 그 내용의 뜻을 꿰뚫어 알지 못하면 충실한 번역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번역 작업이 끝난 다음에 그 原典의 연구 번역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다시 재구성하여 해당 고전의 入門書나 研究書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고전 국역은 번역 사업 그 자체로 끝나고 이러한 국역의 결과로 얻어지는 副産物(入門書와 研究書)을 출판하는 데에는 거의 주의하지 않았다. 앞으로 이러한 부산물로 얻는 책자들을 대학 출판부에서 펴내어 학생들에게 널리 읽힌다면, 고전 문화를 근대 문화에 접목시키고, 전통 문화를 대중 문화로 승화시키는 데에 큰 구실을 할 것이다.

앞으로 고전 국역 사업은 한국학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민족 문화의 발달과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위하여, 그 方法論에 있어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단계로 다시 발돋움할 시점에 처해 있다고 본다. *